

1. 세계문화유산 화성  
(世界文化遺産 華城)



1. 세계문화유산  
화성



## 1. 세계문화유산 화성(世界文化遺産 華城)

세계유산이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인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을 말한다.

2001년 3월을 기준으로 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수는 161개국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유산, 그리고 이들의 성격을 합한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현재 총 690점의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529점이 문화유산, 138점이 자연유산, 23점이 복합유산이다.

한국은 1988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다.

1995년 1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종묘,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과 판전이 등재되었다.

화성과 창덕궁은 제21차 회의 (1997년 12월1일 - 6일, 나폴리)에서 등재되었다. 2000년에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고창·화순·강화고인돌유적이 지정되어 총 7점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올라있다.

### 〈화성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 및 기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은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근대초기 군사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다.”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

둘째, “화성은 18세기 군사건축물을 대표하여 유럽과 극동아시아의 성제의 특징을 통합한 독특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셋째, “화성의 역사는 불과 200년밖에 안됐지만 성곽의 건축물들이 동일한 것 없이 제각기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Nimal De Silva교수)